

목포공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기공모 최우수상' 수상

교육부에서 주최·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 조선기계과 박승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목포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 수기 공모전'에서 박승민(2년 조선기계과) 학생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 기초 실습을, 기업에서 현장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교육모델이며 목포공업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2020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70개 사업단, 143개교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

한 이번 공모전에서 박승민 학생은 '도제를 만나면서 바뀐 나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12월 8일에 수상했다.

박승민 학생은 "도제학교에 참여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승민 학생은 수기에서 중학교 시절까지 학교 성적이 평균이하의 학생이었는데 도제학교를 만나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화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제 교육에 참여하면서 졸업할 때

가 되면 몰라보게 변해 있을 모습이 기대되고 선생님들의 응원에 더욱 멋진 삶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또한 선박 기계 기술 분야가 지금은 어렵지만 세상에 가지 못할 길은 없고 이 분야에 도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목포공업고등학교 김상호 교장은 "평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도제교육의 발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목포공업고등학교는 현재 영암 대불산업단지 및 무안 일로농공단지의 강소기업 10곳과 협약을 맺고 조선융합분야의 우수한 기능인 양성을 위해 매진 중이며, 지역경제 활



성화에 바탕이 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진도 금성초등학교, 연극 '흥부전' 공연

3~4학년 학생들, 학교 문화 예술 강사와 1년간 연극 준비

진도 금성초등학교(교장 김덕용)는 지난 4일 3~4학년 학생들이 전교생 앞에서 1년간 준비한 연극 '흥부전'을 선보였다.

이 날 공연 관람에는 전교생과 병설유치원생이 함께하였다.

3~4학년 학생들은 학교 문화 예술 강사와의 수업 속에서 1년간 연극 '흥부전'을 준비하였다.

캐스팅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배역을 맡고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연극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3학년 김동흠 학생은 "전교생 앞에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이 떨리기도 했지만 1년간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니 뿌듯했다"라고 말하였다.

또 4학년 이상현 학생은 "대사뿐만 아니라 노래나 율동 등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처음 하는 연극이다 보니 공연에서 많이 떨리기도 했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더 자신감 있게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덕용 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끼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초반에 학생들이 노래를 직접 부르며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3~4학년 학생들이 선보인 이번 '흥부전' 공연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다.

진도=조상용 기자

광주송정도서관, 성인문해학습자 대상 전국 백일장 대회 '성과'

조옥주 '최우수상'·남복남 '늘배움상'·윤효진 '우수상'

광주송정도서관이 초등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백일장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사)한국문해교육협회가 주최한 '제16회 성인문해학습자 편지쓰기 및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늘배움상을 수상했고, '제6회 문해교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송정도서관 조옥주(여, 62세) 학습자는 '한글의 나라 가는길, 도서관 54계단'이라는 제

목의 체험수기로 '제16회 성인문해학습자 편지쓰기 및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체험수기에는 조옥주 학습자의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형편 및 50여 년이 지난 후 광주송정도서관에서 3년째 공부를 하며 변화된 생각과 생활 등이 담겨 있다.

또 남복남(여, 69세) 학습자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쓰기로 늘배움상을 수상했다.

조옥주 학습자는 "배움이 인생의 큰 행복이

다"며 "공부하러 가는 시간이 행복하고 설레어 도서관 54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걸음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제6회 문해교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는 광주송정도서관 윤효진 문해교사가 '문해학습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의 체험수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문해교육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성인문해학습자 백일장 대회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74개 기관에서 총 1,461개의 작품이 접수돼 심사를 진행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생인권보호 홍보 공모전 결과 발표

UCC·웹툰·6행시 3개 분야 40팀 68명 수상자 선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학생인권보호 홍보 공모전'에서 최종 3개 분야 40팀 68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8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인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응모에 참여한 작품은 150여 편에 이르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3개 분야(UCC·웹툰·6행시)로 나눠 실시한 이번 대회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했으며, '인권'에 대한 생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였는가, '작품의 내용과 참여자의 가치관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관점을 두고 심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별도의 시상식 없이 학교장이 상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우수작품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부터 전라남도교육청 1층 로비에 전시하고,

우수작품 모음집 형태의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심이 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 중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 중심 학생인권 교육자료'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